

■ 허정무 감독 임기는?

2010년 월드컵때까지

대한축구협회가 새롭게 축구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은 허정무(52) 감독이 2010년 남아공월드컵 때까지 태극전사를 이끌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축구협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10일 ‘신임 감독의 계약기간’을 묻는 질문에 “당연히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까지다. 본선에 오르지 못하면 계약이 끝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표팀을 2006년 월드컵 본선에 올렸던 본프레데 감독이 본선을 앞두고 해임됐던 사태가 또 한번 연출되지 말아야 한다”며 “협회는 물론 언론도 허 감독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주 내에 허정무 감독과 계약서 등 서류상의 문제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축구협회는 2006년 독일월드컵을 앞두고 2004년 6월부터 요하네스 본프레데 감독에게 사령탑을 맡겼지만 2차 예선부터 힘겨운 승부로 최종예선에 오른 뒤 가까스로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하지만 이후 본프레데 감독의 지도력에 대한 나쁜 여론이 형성되면서 축구협회는 결국 2005년 8월 자진사퇴 형식으로 퇴진시켰다.

이 때문에 허정무 감독도 2010년 월드컵에 대한 ‘최종 예선용 사령관’이 아니라는 의구심을 들게 했던 게 사실이다.

더불어 허 감독의 사령탑 낙점 이후에도 곧바로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지지 않은 채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라는 모호한 대답만 계속 했던 게 사실이다.



10일 영국 런던 화이트하트레이에서 펼쳐진 토트넘과 맨체스터시티의 2007~2008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6차전에서 토트넘의 이영표가 드리블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정무 신임 한국축구대표팀 감독이 10일 서울 신문로 대한축구협회를 방문, 정몽준 축구협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정몽준 축구협회장, 허감독 상견례

“최대한 협조할테니 방심은 말라”

“겨울 훈련기간이라 선수들의 경기감각이 떨어져 있어 훈련할 시간이 부족하다”(허정무 감독), “최대한 협조하겠다. 절대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정몽준 회장)

정몽준(56) 대한축구협회장이 한국 축구대표팀의 새로운 사령탑으로 선임된 허정무(52) 감독과 첫 상견례 자리에서 전폭적인 협조를 강조하고 나섰다.

정 회장은 10일 오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6층 접견실에서 허 감독과 사령탑 선임 이후 처음 만나 20여분 동안 환담을 나눴다.

정 회장은 “축하한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을 앞두고 치열한 심사과정을 통해 사령탑을 맡았던

기억이 난다”며 “그 당시 2승1패를 하고 16강에 오르지 못한 게 아쉬웠다. 너무 심리적 부담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을 꺼냈다.

그는 특히 “2006년 독일월드컵 때도 대표팀이 예선전부터 힘겹게 치렀다. 예선전부터 절대 방심하지 말고 경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허정무 감독은 “내년 2월6일 예정된 투르크메니스탄과 2010년 남아공월드컵 3차 예선 1차전 홈 경기를 앞두고 2월 3일부터 소집할 수 있다”며 “겨울 훈련기간이라 선수들의 경기감각이 떨어져 있을 게 걱정된다”고 협회의 선수출하 협조를 부탁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전남은 마음 속의 고향…갑자기 떠나게 돼 죄송”

허정무 감독, 팬들에게 이별의 글

허정무 신임 축구대표팀 감독이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 팬들에게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전남 구단을 떠나게 된 것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다.

허 감독은 10일 전남 구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먼저 갑작스럽게 떠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전남 감독으로서 지역 팬들과 서포터스의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포스코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나라를 위해 어려운 시기에 봉사를 해달라는 대한축구협회의 간곡한 요구

명령을 받았다.

이영표의 활약 속에 토트넘은 2-1로 승리, 3승6무7패(승점15)로 16위에서 13위로 뛰어올랐다.

이동국은 앞서 열린 앤필드과 홈경기에서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끝내 출격 명령을 받지 못하고 벤치만 달렸다. 이동국이 빠진 가운데 미들즈브러는 단독 선두 앤필드를 2-1로 꺾는 이변을 일으켰다. 미들즈브러는 3승5무8패 승점14로 18위에서 16위로 점프하며 강등권을 벗어났다.

한편 영국 스포츠 전문매체 스카이스포츠 인터넷판은 이날 이영표에게 ‘열심히 공격에 기여했다’는 친평과 함께 평균보다 높은 7점을 줬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내셔널리그 챔피언 미포조선

내일 K-리그 진출 여부 발표

실업축구 내셔널리그 정상에 올라 K-리그 진출 기회를 얻고도 승격을 유보했던 울산 현대미포조선(이하 미포조선)이 12일께 승격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포조선 구단은 10일 “여러가지 복잡한 사안을 검토하느라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빠르면 12일까지 내셔널리그 연맹에 승격 여부에 대한 입장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맹은 미포조선의 입장문을 전해 들은 뒤 14일 이사회를 통해 승격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미포조선은 애초 내부 회의를 거쳐 지난 주 승격 관련 입장문을 표명할 계획이었으나 K-리그 승격시 파생될 선수 확보 어려움과 연고 이전 등의 문제점을 두고 심층적인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포조선 구단 관계자는 “K-리그 승격이란 원칙을 지켜야 하고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한다. 하지만 K-리그 신인 드래프트가 끝나 정상적인 선수 수급이 어렵고 같은 그룹 팀이 한 연고지에 있을 수 없다. 업무적으로 풀어야 할 게 많다”고 설명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한국 여자핸드볼팀, 스페인에 패

세계선수권 8강 자력 진출 불가능

한국 여자핸드볼 대표팀이 스페인에 지면서 제18회 세계선수권대회 8강 자력 진출이 불가능해졌다.

임영철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0일 새벽(한국시간) 프랑스 디옹에서 열린 본선 리그 2조 3차전에서 스페인에 26-28, 2점 차로 무승부를 끝냈다.

1승3패를 기록한 한국은 2조 6개 팀 가운데 5위로 뉘어았고 4위까지 나가는 준준결승 진출이 어려워졌다. 한국은 12일 강호 헝가리와 최종전을 무조건 이긴 뒤 꽃다발란드(4위)가 4위 스페인(1승1무2패)을 잡아줘야만 8강에 오를 수 있다.

임영철 감독은 “한국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정도로 스페인 수비가 완벽했다”며 “우리보다 상대팀 분석을 더 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1일(화)

▲07/08 NFL<뉴올리언스 : 애틀랜타>(10:30·SBS스포츠)

▲NH농협 07/08 V리그 남자부<한국전력 : 삼성화재>(16:00·KBS N SPORT)

▲07/08 여자프로농구<신세계 : 삼성생명>(16:50·SBS스포츠)

▲07/08 프로농구<동부 : 삼성>(18:50·SBS스포츠·Xports)

12일(수)

▲07/08 UEFA챔피언리그 32강 6차전<마르세이유 : 리버풀>(04:30·MBC ESPN)

금당부동산

☎ 223-7400 웹 016-632-5659
(위치: 충정로 5가 4동 코너 2층)

투자

• 사무, 전용주택지, 남양검문소부근, 그린밸리 1640평 토지와 29평
• 사무, 대세대부지, 월산동 MBC 방송국 501평 광주시내 전세조작 평당 140만원
• 원룸, 대세대부지 남구 시흥 174평 29평
• 저주거지역 8300평 급증부지 이파트, 여수제2차, 교육부지 교육부지 1636평
• 전원주택, 광장동 죽관리 관리지역 670평
• 희망을 시내전 20평 이전 7500만원
• 사구원 부근 나대지 96평 평당 3억 7400만원 28평 전세 29평 전세
• 남광강 기도원 수련원과 죽관, 송주군 남해 고속도로 12만평 8억
• 정회장은 10일 오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6층 접견실에서 허 감독과 사령탑 선임 이후 처음 만나 20여분 동안 환담을 나눴다.
• 정 회장은 “축하한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을 앞두고 치열한 심사과정을 통해 사령탑을 맡았던

특급상가 매매·임대

복구 용봉동 투룸 상가주택

대지 238㎡(72평), 연간평 396㎡(120평)인 3층 코너 건물이 3억5천만원이다. 보증금 1억원, 월203만원이 나온다. 2004년 10월원공이며, 연수자수익률 11% 예상된다. 임대수익으로 적합하다.

세금문제로 인한 금매물, 실 취득가액은 4억5천만원
전대후문 노래방 215㎡(65평)
보증금 5,000원/월 150,000원
영업기간 10년, 최근 리모델링 최신시설(음기11개, 소방안전설비)
영업시간 19시간(오전11시~深夜6시), 낮에는 중고생/밤에는 대학생
광주대학원 중 최고의 유동인구와 상권 밀집지역, 도무미 없는 청정지역
방학이 없는 젊은이들의 상권

전대후문 대로변 1층 166㎡(50평) 상가
보증금 1억 원/월 7백만원, 월 3억5천만원인 상가점포를 매매로 나왔다. (분기 가능)
광주대학원 중 최고의 유동인구와 상권밀집지역이다.
주말 유동인구 10만인원이다.
점포 월평 67㎡(20평)도 활용가능하다.
커피숍, 인테리어, 휴관분식, 이동통신 등 수많은 예비창업자들과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리브풀”을 받는곳

복구 운암동 인근

2천세대 아파트상가 2층 학원 60평

매매가 21,500만원/월지 6,500만원/시설·집기포함)

상가 전속중개계약문 공인증개사사무소

BM 公認仲介士 事務所

부동산은 금전적인 이익이나 내놓으실 때에는 최소한 31일전에 연락주시십시오.
업무를 드릴 때는 풍경과 실내 분위기의 물질

상당히 중요합니다.

mobile)010-7288-4551 ☎(062)4342-894
(전화번호 스타일입니다.)

법원경매 전문회사

늘 앞서가는 사람 - (주)육센코리아

(법원경매입찰장 앞) 상담전화 : (062) 222-8446

성공적 파트너 / (주)육센코리아 무료상담

권리분석, 면도 유치원내에서 및 성립여부, 낙찰기준에 따른 예고등, 신청위 기준기, 기초분, 가정부자산 등 차별화된

상담을 기다립니다. (법원경매입찰장 앞) 030-3025

▶ 법원경매·법원상가 상담

대표이사 010-3666-8446

대표이사 010-3666-8446

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정로 166길 106 (김정기) 회장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정로 166길 106 (김정기) 회장자